

# 南道の恨, 문학·영화로 활짝 피우고...

## ■ ‘천년학’ 되어 떠난 이청준의 삶과 문학 세계

“여인은 초저녁부터 목이 아픈 줄도 모르고 졸창 소리를 뿜어내고, 사내는 그 여인의 소리로 하여 끊임없이 어떤 예감 같은 것을 견디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북장단을 잡고 있었다. 소리를 쉬지 않는 여인이나, 묵묵히 장단 가락만 잡고 있는 사내나 양쪽 다 이마에 허튼 땀방울이 스고 있었다.”(서편제 중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꾸준히 수작들을 발표하며, 한국 소설이 흥에 겨워 절로 소리를 내도록 신념난 북 장단을 치렀던 소설가 이청준. 소리에 미친 아버지가 자신의 손으로 딸의 눈을 멀게 했던 ‘서편제’를 통해 우리 민족의 한을

장흥 출신·65년 ‘퇴원’으로 등단

4·19, 5·16 등 시대의 아픔 그려

서편제·천년학·영화계도 큰 족적

통해 우리 민족의 한을 문학으로 승화시켰던 이청준이 지난달 31일 ‘당신들의 천국’에 들었다. 이청준 소설의 뿌리는 ‘한(恨)과 고향이다. 1939년 8월 장흥군 대덕면 진목리에서 태어난 그는 전라도의 한을 구성진 남도 가락에 실어 문학으로 승화시켰다.

1957년 광주 서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고향을 떠났던 그는 생전에 “시골에서 태어나 살다 도회지로 옮겨오면서 갖게 된 어떤 절망과 동경 같은 것이 문학을 하게 된 동기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1965년 사상계에 ‘퇴원’을 발표하며 등단한 그는 1967년 ‘병신과 머저리’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하고 2년 뒤인 1969년에는 ‘매잡이’로 대한민국문학예술상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등단 초기부터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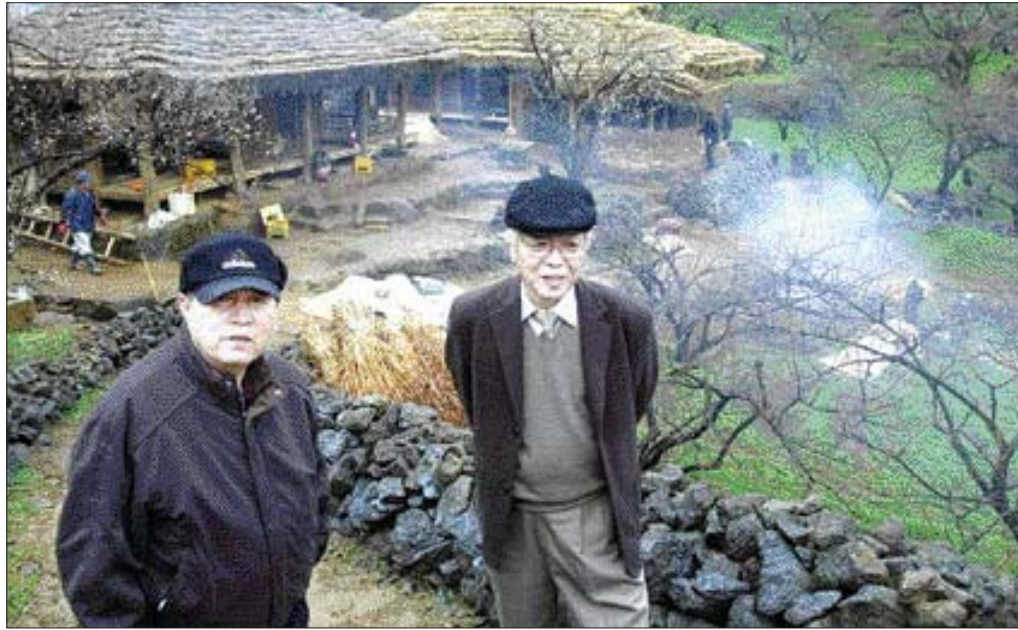
그의 수많은 작품 중 소록도를 배경으로 인간의 삶과 이상주의적 세계를 그린 ‘당신들의 천국’과 한의 정서와 예술혼을 탐구한 ‘남도사람’ 연작 등은 문단의 찬사를 받았다. 또 종교적 구원의 문제를 다룬 ‘낮은 데로 임하소서’ ‘자유의 문’ 등은 인간의 내면을 다룬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

을 줬다. 그의 소설속 공간도 대부분 전라도에서 시작된다. ‘보성을 한적한 길목 주막’(서편제), ‘마을이라기엔 좀 빛한 데가 있을 만큼 40호 가량의 초가집들이 산비탈을 타고 버섯처럼 돌아나 있는 작은 산촌’(매잡이), ‘늦가을 해가 설핏해진 저녁 무렵이 다되어서야 도착한 회진’(선학동 나그네), ‘생긴 게 꼭 습지에 돌아 오른 버섯 형상을 닮아 있는 집’(눈길) 등 고향 풍경이 주로 등장한다.

그는 자기 문학의 출발점을 “고향, 어머니, 불행한 유년, 이 모두가 못처진 원죄 의식”이라고 말하곤 했다. 세살짜리 아유를 흥영으로, 만형을 결핵으로 잃은 건 그가 여섯 살 때 일이다. 그이듬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뒤따랐다. 그는 초등학교 2~3학년 무렵부터 다락에서 만형이 남긴 소설책과 일기장을 곁한 독후감 노트를 읽으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토대가 된 소설이 ‘눈길’ ‘축제’ 등이다.

그의 소설은 심오한 주제 의식을 담고 있고, 기법상 묘사도 다분히 철학적이기 때문에 관념소설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인간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관소리 등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소재를 차용했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는 문단뿐 아니라 영화계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임권택 감독이 1993년 영화화 한 ‘서편제’는 한국 영화 처음으로 국내에서 1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이후 ‘축제’ ‘천년학’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지난해 칸영화제에서 전도연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긴 이창준 감독의 ‘밀양’도 그의 ‘벌레 이야기’를 영화화 한 것이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지난달 31일 타계한 이청준 작가의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 2005년 ‘서편제’와 ‘천년학’을 만든 임권택 감독과 고향 장흥을 방문한 이청준(우)씨(위). 지난해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 ‘밀양’ 시사회에 참석한 이청준(좌)씨가 이창준 감독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미백(未白) 이청준 형을 보내며..

한승원 (소설가)



미백 이청준형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미백 형, 삼복의 팽벌 무더위 속에서 무에 그리 바빠 서둘러 떠나십니까. 우리들의 고향 정남진 장흥 산하에 물 죽제가 한창인 오늘 아침에 당신의 부음을 들었습니다.

갑나무 그늘로 가서 뜰에 핀 죽두리 꽃, 백일홍 꽃, 연꽃의 수련꽃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꽃들 위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을 보면서 당신의 소설 ‘소리의 빛’을 생각했습니다.

작렬하는 햇살이 쏟아내는 신화 같은 소리. 장님이 된 여인이 뿜어낸 그 소리로 하여금 선학동에서 학을 날게 하였고, 그럼으로써 형은 그 마을을 신화의 공간으로 형상화시켜 놓았습니다. 이청준 형 지금 가시는 곳이 그 선학동이지요.

우리 인연은 묘합니다. 형이 태어난 곳과 내가 태어난 곳은 4km가 미처 못되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동갑인데 형의 생일이 두 달 빠릅니다. 형은 나보다 더 철이 먼저 들었고, 소설에 대한 비도 빨리 깨쳤고, 형은 한국 문학계의 별이 되었습니다.

### “천관산보다 넉넉했던 형 선학동에서 만복을 누리소서”

이치적이고 지적인 형은 세상을 문명비평적인 시각으로 통찰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세상을 살면서 후학들에게 좋은 소설을 쓰는 소설가의 전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형은 천재이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끝까지 글을 써내는 근면한 작가의 본을 보였습니다. 동갑내기이지만 형은 나에게 좋은 거울이었습니다.

형은 가난에 밀려 출항했다가 형이 늘 가슴 속에 품고 사는 천관산보다 더 큰 산자락이 되어 고향을 끌어안았습니다. 형의 문학은 원초적인 고향 혹은 어머니를 위한 슬프고 향기로운 헌사였습니다. 형은 이 세상 고독한 사람들의 영혼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해주었습니다.

아, 미백 형, 형이 만든 신화세상 선학동에서 부디 만복을 누리십시오.

형이 투병한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보낸 날 밤 꿈에 우리는 대작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시로 썼는데, 그 시 ‘연’을 형을 보내는 말씀으로 드릴까 합니다. 형은 형의 신화 세상 선학동으로 떠나가고 있으므로.

### 연 — 이청준 형을 생각하며

스물셋 해 전, 내 처 아케이자, 형의 고추맛집이 동무인 태웅이의 일로 만났을 때, 내가 ‘형의 연은 상충기류란 까닭으로 질더미에 기대앉은 채 연줄을 잡고만 있어도 하늘 높이 잘 나는데, 내 연은 조약해서 좋게 날다가도 자꾸 가라앉곤 하므로 줄을 잡아채면서 마음질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소’하고 말하자 형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지요.’  
‘미백 형, 우리 아작은 그 연줄 놓지 맙시다.’  
이 편지 보낸 날 밤 꿈에 우리는 만나 대작하며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 연줄 놓고 가야겠지요.’  
‘그럼 우리 연들은 어디로 날아갈까요?’  
‘글쎄, 어디로 갈까요.’  
‘어린 시절 별똥들 떨어져 쌓이던 천관산 천왕봉 역세 숲 근처 어디로 러이지요.’

## “문학도 삶도 닳고 싶었던 어른” 빈소 조문 행렬

지난달 31일 타계한 소설가 이청준(69)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는 오전부터 문단 안팎 여러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하루 김승옥, 이여령, 정현종, 황동규, 박병호, 이인성, 임철우, 김혜순, 성석제, 우찬제, 채호기, 김원일, 김주영, 정과리, 김형경 등 많은 문인들이 고인의 빈소를 찾았다.

빈소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호상(喪狀)을 맡은 문학평론가 김치수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개인적인 슬픔보다도 훌륭한 작가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우리 문단의 큰 손실”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여령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는 “존재의 세계를 그린 이청준의 소설은 시대와 풍속이 변해도 생명력이 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청준은 김승옥과 더불어 때문지 않은 모국어로 작품활동을 한 제3세대 문학의 대표주자”라며 “제3세대가 문단 전면에 나선 것이 엇그제 같은 데 역사

속에 묻혀가는 것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설가 이인성 씨는 “항상 자기 정돈을 깔끔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빈소가 차려진 직후 오전 중 조문을 다녀갔고 영화배우 조재현 씨와 ‘당신들의 천국’의 실제 모델인 조창원 전 소록도 병원장도 빈소를 찾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호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정·관·계계 인사들도 화환을 보내 조의를 표했다. 연합뉴스

### ■ 이청준 연보

- 1939년 장흥군 대덕면 진목리(현 회진면 진목리) 출생
- 1960년 광주일보 졸업
- 1965년 단편 ‘퇴원’으로 ‘사상계’ 신인문학상 당선
- 1966년 서울대 독문과 졸업
- 1967년 ‘병신과 머저리’로 동인문학상 수상
- 1974년 장편 ‘당신들의 천국’ 신동아 연재
- 1975년 중편 ‘이어도’로 한국일보 창작문학상 수상
- 1993년 ‘서편제’ 영화화
- 1998년 순천대학교 석좌교수 임명
- 2003년 인촌상 수상, ‘당신들의 천국’ 100쇄 돌파
- 2004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
- 2005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선출, 이청준 문학전집 25권 완간
- 2007년 호암 예술상, 소설집 ‘그곳을 다시 잊어앓다’

**ANYCHE CHAIR**

기술과 편재를 바탕으로한 최적 전문 생산업체 - 무인공정시공

Anyche

**ANYCHE CHAIR**

기술과 편재를 바탕으로한 최적 전문 생산업체 - 무인공정시공

Anyche